

## 경북내륙지역 여칸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Space Composition and Extension of Yeokan-Jip in Kyungbuk Inland Regions

최 장 순\*  
Choi, Jang-So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idential space composition and extension of Yeokan-Jip in Kyungbuk inland reg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act that Yeokan-Jip is mixed with  $\text{—}$  type Hott-Jip(a house type with one-row rooms under one roof) of the southern districts and  $\text{⌋}$  type Hott-Jip of the central districts makes it appear that its origin is to be extended and transformed from the Hott-Jip. Yeokan-Jip's entry way is the front entry to keep up with Hott-Jip's entry way judging from the layout of space. Yeokan-Jip's basic type is  $\text{—}$  type with six Kans(Kan, a unit to count room to divided with four posts), but the case of seven kans attached Magu(cowshed) is  $\text{⌋}$  type. The Sekyup-Jip(a house type with three-row rooms under one roof) of Yeokan-Jip shows apparently a square type to be extended residential space with two row rooms. Yeokan-Jip is developed into Kyup-Jip with front four or five Kans and side two Kans instead of being done into Nemyup-Jip(a house type with four-row rooms under one roof) because of insufficient lighting and ventilation of Sekyup-Jip. Yeokan-Jip has a tendency to remove Magu and Chikkan(toilet) from inner space.

Keywords : Yeokan-Jip, Plan Type, Space Composition, Space Extension

주요어 : 여칸집, 평면유형, 공간구성, 공간확장

## I. 서 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서민들의 집인 민가에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후와 지리적 특성과 같은 자연적 배경은 물론 생업과 관습까지 담겨있다. 특히 경제성과 합리적인 정신을 토대로 지어지는 것이 민가이므로 경북내륙 산간지역 화전민가의 주거공간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화전민이란 그 근본 뿌리가 평야지대에서 이주해 왔으므로 그들의 주거도 알게 모르게 그 뿌리가 평야지대의 주거형식에 밀바탕을 두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경북내륙 산간지역에 나타나는 화전 민가의 하나로 여칸집이 있는데, 그 평면, 구조 및 배치 형식 등에서 평야지대의 민가와 대별되는 특징을 지니며, 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홍식(1992)은 곁집·제주도 곁집·양통집의 한 유형으로 여칸집을 다루었으며, 지역을 한정하여 강원도 남부와 경북 내륙산간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곁집에 대한 연구로는 김일진(1979), 김명복(1992), 조성기(1999), 홍승재(1998), 최장순(2003)의 연구가 있다. 김일진은 경북내륙 산간지역과 강원도 남부지역 곁집의 상관성을 밝히고 있으며, 김명복은 발생론적 관점에서 각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 및 지역적 변용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하여 민가에 내재된 의미를 밝히고 있고, 조성기는 여칸집 계열의 다양한 민가형식을 조사하여 이들의 변용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을 밝히고 있다. 홍

\*정회원, 국립삼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승재는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방과 울진·영덕 등 태백산맥 동사면의 겹집들의 평면 및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최장순은 안동권에서 나타나는 여칸집과 삼척권에서 나타나는 두령집<sup>1)</sup>의 주거공간에 대한 지역간 공간 확장 사례를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과 같이 여칸집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와 삽입이라는 주제로 공간 확장<sup>2)</sup>에 따른 주거공간 구성의 특성을 밝힌 연구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칸집에 대한 주거공간구성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밝히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들 산간지역에 산재해 있는 화전 민가의 대표적 형태인 여칸집을 대상으로 주거유형과 공간 확장 사례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여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아울러 여칸집은 겹집 형태의 민가로 안동·영풍·봉화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이들 민가는 태백과 소백이라는 양대 산맥이 만나는 험준한 산간지역에 분포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으며<sup>3)</sup>, 점차 사라져가므로 이들에 대한 건축적 자료를 기록 정리해 두는 데에도 연구 의의를 두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화전은 1960년대 정부의 일괄 정리<sup>4)</sup>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여칸집에 대한 조사를 종래 화전이 성행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여칸집이란 학자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소위 마루중심형<sup>5)</sup>, 안동형<sup>6)</sup>, 여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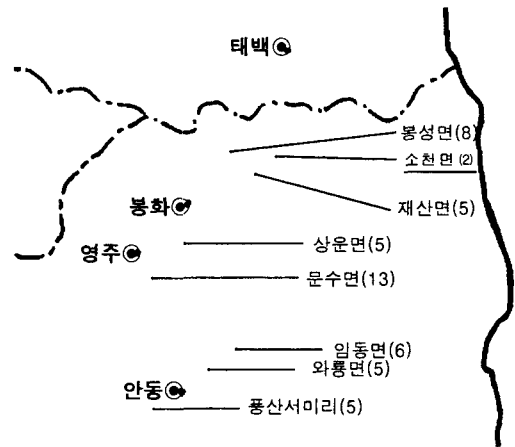


그림 1. 여칸집 분포도

형<sup>7)</sup>, 여칸형<sup>8)</sup>(이하 ‘여칸집’이라 한다)이라 불리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이 집은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여성중심공간인 안방영역과 남성중심공간인 사랑방영역이 서로 분리되고, 정지와 봉당이 주거의 정면부분에 위치하면서 한 지붕 아래에 실들이 겹집형태로 배치되는 민가이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경북내륙 산간지역의 안동·영풍·봉화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봉화·

안동 이남지역인 의성·군위 등에서는 겹집보다는 홑집 계열이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경북내륙 산간지역은 주변의 다른 지역과 달리 산맥으로 둘러싸여 타지역과 교통이 쉽지 않았던 지형 특성으로 그들만의 주거문화가 수대에 걸쳐 거의 변형없이 꾸려왔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거의 기본형태를 비롯한 주거공간의 확장 과정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이들 산간내륙지역에 나타나는 겹집 계열의 여칸집이다. 왜냐하면 여칸집은 함경도에서부터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대상지역인 경상북도 지역에 나타나는 겹집 분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뿐더러 이들에 대한 연구는 경북내륙 산간의 화전 민가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 삼척을 중심으로 한 태백산간지역에 나타나는 민가로 일반적으로 지붕재료에 의하여 너와집, 굴피집, 겨릅집(또는 저릅집)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의 명칭은 “둘레둘레 돌아가며 주위에 실들이 있다”하여 두령집(또는 두리집)이라 한다. 임상규(1997. 3), 영동지방의 민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3호, 165쪽.

2) 이승녕(1982), 국어사전, 동아출판사, 2149쪽에 의하면, ‘확장’이란 단어는 범위 또는 세력을 늘어서 넓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의 ‘확장’이라는 단어는 증축을 통한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붕 아래에서 동시에 축조가 이루어지면서 주거공간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3) 조성기, 앞 책, 145쪽

4) 1968년에 공포된 火田整理法을 들 수 있다.

5) 김일진, 김명복, 앞 책

6) 김홍식, 앞 책

7) 홍순인(1979), 전통마을의 형성과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사논문

8) 조성기, 앞 책

연구방법은 대상지역에 산재해있는 김명복(1992)의 연구 38호와 홍승재(1998)의 11호 총 49호의 민가들 중 유형별로 특징지을 수 있는 17호를 방문, 촬영, 관찰을 통해 민가의 물리적 공간구성을 파악하고, 공간사용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간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는 이들 여칸집도 점차 줄어들거나 훼손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 기존에 실측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하여 경북내륙 산간지역 여칸집의 주거유형을 비롯한 주거공간 구성방식, 주거공간의 전개과정 등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한 후에 결론을 제시하였다.

## II. 대상지역 개황

한반도의 남동부를 차지하는 경북내륙 산악지역은 태백산맥 및 소백산맥과 그 지맥이 가져온 자연환경으로 인접한 주변지역과는 뚜렷한 경계를 형성하여 자연적으로 避兵·避世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sup>9)</sup>. 강원도에서 뻗어내려 해안선을 평행하게 달리고 있는 태백산맥에 의해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으로 나누어지며, 태백산맥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소백산맥은 대륙세력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교통상으로는 장벽이 됨으로써 이 지역을 지리적 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일성 있는 지리구를 형성하게 하였다.

연구대상 여칸집이 위치하고 있는 봉화·영풍·안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경북내륙 산악지역에 속하면서, 북쪽으로는 강원도 삼척지역과 동으로는 울진·영덕의 해안지역과 남으로는 의성·군위·영천·포항지역과 맞닿아 있다. 기후적으로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도 낮고<sup>10)</sup>, 한서의 차가 비교적 심한 지역이어서 곁집 계열의 여칸집을 선호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사대상지역은 과거 화전마을로 주위가 모

두 산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암반이나 돌이 많이 섞인 암쇄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토양의 척박하여, 지기가 다하면 장소를 옮겨야 하고, 토양의 성질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다른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이삼년 씩 돌아가면서 휴경을 하기도 하는 관계로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공동체적 생산체제가 아닌 거의 대부분을 자체적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급자족의 성격을 질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화전민들은 불법적으로 임야를 불태워 경작을 하는 약탈경제 체제를 이루고 있어, 인구 밀도가 평야지역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산짐승이나 도적 등에 대한 방어에 대처를 해야 하므로, 거의 모든 주거 형식이 폐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주거내 실의 구성에도 역시 영향을 미쳐 평야지대의 一자형 또는 ㄱ자형 홑집과는 공간구조가 다른 여칸형 곁집을 만들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필품에 필요한 재료 역시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연산 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을 짓는 재료 역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III. 주거공간 구성 및 확장

### 1. 주거공간 구성

대상지역의 민가는 기본적으로 평면의 구성방식과 가구기법에 따라 곁집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 곁집은 또 다시 세 가지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안동권에서 나타나는 여칸집이고, 다른 하나는 삼척권에서 나타나는 두렁집 계열의 민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마루 있는 田자집 계열의 민가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안동권의 여칸집에 대한 것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안동권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 여칸집<그림 1과 표 1 그림>은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기본 유형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곁집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을 하고 있으며, 전면 가운데 칸에 봉당이 설치되어 있다. 봉당이란 적설량이 많고 한서의 차가 심한 산간지역의 실내작업공간이다. 이 봉당과 마구

9)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1983), 경상북도사, 상권, 808쪽  
10) 1월과 8월의 평균기온은 봉화지역이 -4.8°C, 26.1°C, 영주지역은 -5.1°C, 23.5°C, 안동지역이 -2.3°C, 25.1°C로 한서의 차가 비교적 심한 지역이며, 연강수량은 각각 988 mm, 1,010 mm, 835 mm로 비교적 小雨地域에 해당된다.

표 1. 기본유형과 특징

기본유형	유형 사례	특징
		<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루를 중심으로 남성영역(상방)과 여성영역(안방)이 구분됨.</li> <li>- 남성영역(사랑방)에 마구가 인접.</li> <li>- 여성영역(안방)에 정지가 인접.</li> <li>- 주출입구가 전면에 있고, 주출입문이 봉당에 면함(前入民家).</li> <li>- 마루 뒤쪽에 바라지창이 설치되는 경향이 강함.</li> <li>- 마구·봉당·정지의 전면부분만 빈지벽으로 되어 있음.</li> <li>- 구유통이 봉당에 면함.</li> <li>- 위생상 불합리한 마구대신 사랑방이 들어서기도 함.</li> <li>- 마구와 축간이 몸체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강함.</li> </ul> <p>(B)</p>

와는 간벽 없이 소여물을 주는 구유만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일부는 빈지벽으로 막고 구유통 위에 미서기 판문을 설치하여 위생상의 보안을 하기도 한다. 전면 마당을 거쳐 쌓여단이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는 봉당으로 드나드는 출입문을 설치한 前入민가로 주출입구가 용마루와 평행하게 놓이는 즉, 주출입구와의 관계에서 지붕의 용마루와 전면 출입문이 평행하게 배치된 민가로서 전면마당의 정면에서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문이 배치된 민가를 의미한다.

앞 열에 정지·봉당·마구가 배열되는 경우도 있고, 마구가 부속체에 설치되면서 대신 방이 들어서서 사랑방·봉당·정지 순으로 배열되는 경우도 있다. 정지와 봉당의 전면은 널판으로 나무 판재를 세로로 세워 만든 빈지벽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정지의 양 측면 벽은 중깃을 세우고 세로 방향으로 설외를, 가로 방향으로 놀외를 보내고 짜리가 지나 수숫대, 풀 등을 잘게 썰어 넣고 반죽하여 바른 토벽으로 되어있다. 빈지벽으로 한 이유는 산간지역으로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를 내보내는 통기성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 채광과 배연 때문이기도 하다.

안방의 정지 쪽 벽에는 벽장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방 내부에도 통나무 두 개를 가로질러 시렁을 만듦으로써 이불이나 반건고리 등 잡동사리를 엮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방의 상부는 복판에 지네모를 보내고 여기에 지네발을 걸쳐서 그 위에 산자를

얼기설기 없어 알매흙을 그 위에 올려놓고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 밑에서 흙을 치받이하여 발라 마감한 고미반자로 되어 있다. 고미반자와 지붕사이는 그대로 개방하여 그 상부를 수장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붕의 까치구멍을 통하여 배연 및 실내환기와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구가 내부에 설치될 경우<표 1의 그림 上>, 마구의 구유통은 마루선에 맞추지 않고 마구 쪽으로 약간 들여서 설치하는데, 이것은 봉당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마구와 봉당의 구획을 정확히 칸에 맞추게 되면 사랑방에 불을 지피는 아궁이를 집안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방(상방)과 마구가 만나는 모서리에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 가미솔을 걸어놓고 소여물을 꿸이도록 되어 있다. 마구의 구유통이 봉당에 면해 있어 정지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소여물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마구를 정지나 봉당에 근접시킴으로써 접근의 용이성은 물론 외부환경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아궁이의 餘熱을 가축의 생육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구 상부는 송판널을 간소다락으로 만들어 콩깍지 등 여물과 집안의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수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표 1의 그림 上 및 그림 2>

마구가 부속체에 설치될 경우<표 1의 그림 下 및 그림 3>, 마구 자리에 사랑방이 놓이기도 한다. 이것에서 공간이 확장되면 정면 3칸, 측면 3칸의 9칸 집으로 집의 전체 윤곽이 거의 정방형에 가까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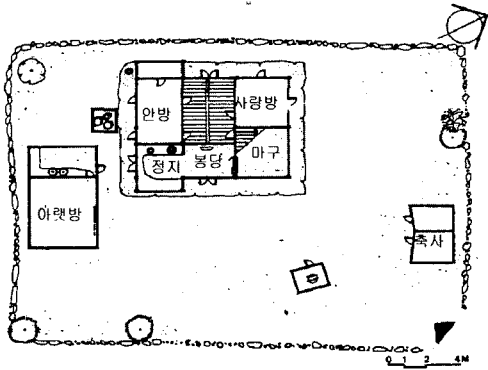


그림 2. 안동 임동면 정인숙가(자료: 김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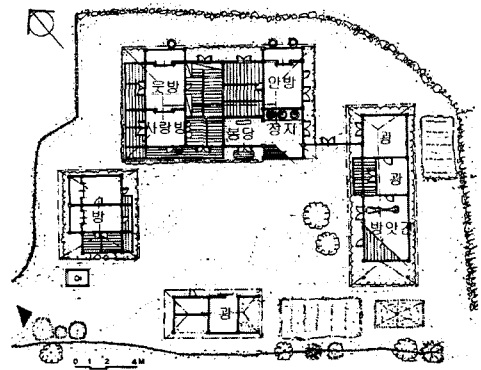


그림 4. 봉화 봉성면 박순호가(자료: 김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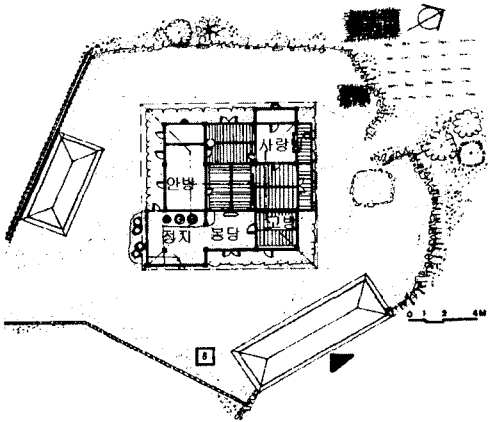


그림 3. 봉화 봉성면 박종원가(자료: 김명복)

한 용마루 아래 세 줄로 각 실이 배열되는 일명 사방집이라고도 하는 세겹집<그림 3 및 표 2의 그림 3>이 된다. 이런 경우 사랑방과 고방과의 사이에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마루방<그림 3>이 놓이기도 한다.

고방 안에는 항아리를 여러 개 놓아 이 항아리에 갈무리한 곡식들을 보관하였으며, 주로 경제권을 갖고 있는 나이든 여자가 관리했다. 고방 벽체에는 통나무 두개를 가로지른 시렁이 걸쳐져 있어 생활 도구들을 이곳에 얹혀 놓거나 걸어 놓기도 하고, 이 시렁을 벽체 바깥까지 돌출시켜 여기에 건초를 매달거나 농기구를 걸어 놓기도 한다.

고방 상부는 넓게 다락을 꾸며 수장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봉당 또는 마루에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고, 그 위로 문을 달았다. 고방 상부 다락에는 마당으로 면한 벽면에 봉창

을 설치하여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루는 한 칸 내지 한 칸 반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으나, 규모가 클 경우 세 칸까지 확대될 경우<그림 4>도 있다. 봉당에서 마루로 오를 수 있도록 디딤돌(또는 디딤목)을 놓았다. 마루 후면에는 바라지창이 있어 채광과 환기가 되도록 하였다. 마루 상부에도 시렁을 설치하여 이곳에 각종 물건을 올려놓거나 걸어놓기도 한다. 마루는 여름이면 밥 먹고 잠자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하기 어려워 곡식들을 보관하는 수장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충분한 통기로 곡식이 부패하지 않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루의 한쪽 벽면에 벽감을 설치하여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행한다. 이러한 의식공간의 구성은 내외사상이나 내외법에 의한 남녀의 영역구분과 함께 이 지역 민가의 유교적 윤리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의 마루는 의식을 행하는 공간으로 몸체 중앙 정면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 마루와 봉당을 중심으로 남녀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고, 안방 쪽에는 여성의 작업공간인 정지가, 사랑방 쪽에는 남성의 작업공간인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 2. 주거공간 확장

흙집에서 겹집으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학자는 정

11) 정인국(1980),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2) 주남철(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인국<sup>11)</sup>과 주남철<sup>12)</sup>이 있다. 이들 학자들은 원시시대의 1실주거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공간분화인 食·寢의 공간이 분화된 2실주거로 거쳐, 3실 一字形 홑집이 완성된 후에 이로부터 공간이 확장 발전되어 겹집이 나타났다고 한다. 즉, 인간에 의해 축조된 원초적 주거인 움집에서 주거공간이 분화되어 홑집을 거쳐 겹집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주거든지 그 발전단계에서 기본형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이 확장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화권 안의 민가형에는 하나의 원형이 있고, 그 후 계속해서 일어나는 주거 욕구에 따라 원형에 대한 수정과 변용이 가해져서 다양한 민가형식을 나타나게 된다.

특히 안동권에서 나타나는 여칸집 계열의 민가는 남부지방의 一자형 또는 중부지방의 ㄱ자형 홑집과 혼성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sup>13)</sup>고 하는 사실은 그 기원이 남부지방형과 중부지방형의 홑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연구조사차 방문한 안동 풍산읍 서미리에서 만도 남부지방의 一자형과 중부지방의 ㄱ자형 홑집이 6호이고, 겹집인 여칸집이 4호로 서로 혼재하여 나타난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즉, 경북내륙 산간지역에 자생하는 민가의 원형은 홑집형태로 이것이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겹집형의 여칸집으로 변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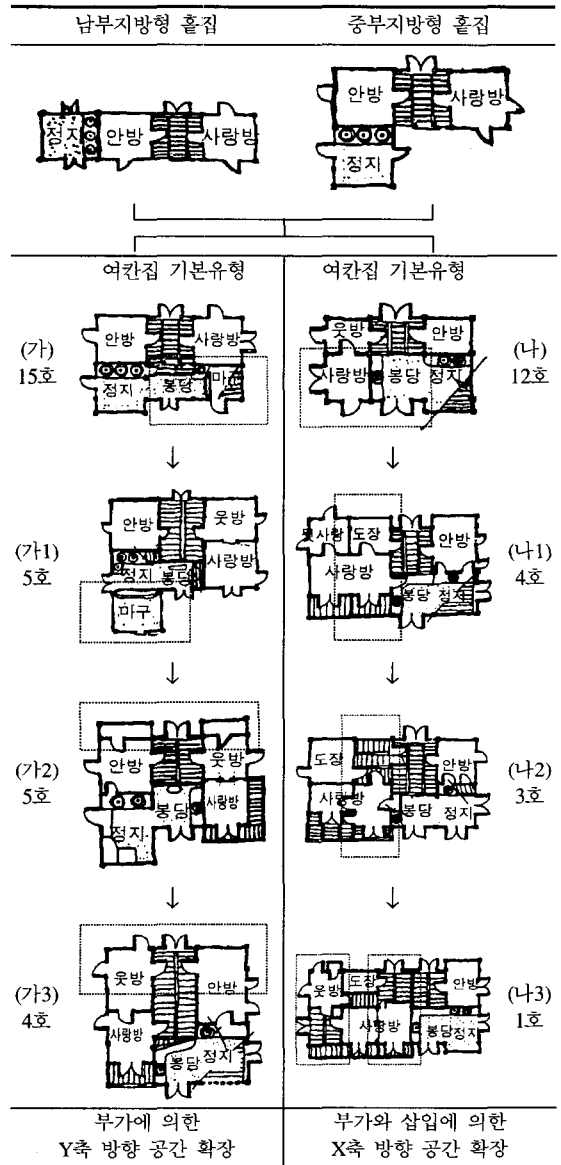
또한 당시의 교통수단을 미루어 보면 험준한 산간 지역일수록 교통이 불편하였을 것이므로 주문화의 전파과정에서 그 지역민들의 합의를 얻은 결과<sup>14)</sup>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관련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북내륙 산간지역은 기본유형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공간이 확장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1) Y축 방향 공간 확장

기본유형은 전체적인 규모가 정면 3칸과 측면 2칸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이 지역에서 자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평면의 발전 계통상에서 볼 때 여칸형 겹집의 기본형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이런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마구가 몸체 내부에

13) 조성기, 앞 책, 151쪽  
 14) 조성기, 앞 책, 151쪽  
 15) 김명복, 앞 책, 66쪽

표 2. 공간 확장 변형추정도



\*가열과 나열의 평면도는 김명복, 앞 책에서 참조

있는 경우<표 2의 그림 가>와 마구가 몸체에서 분리되어 부속체에 설치되는 경우<표 2의 그림 나>이다. 마구가 몸체 내에 설치되는 경우 가축의 관리와 도난 방지가 가능하나, 주거 내에서 가축 분뇨 냄새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을 야기하기 때문에 마구가 몸체에서 분리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마구가 몸체에서 나가면 그 자리에 방(특히 사랑방)이 들어서는 변화를 보이는데, 여칸집 계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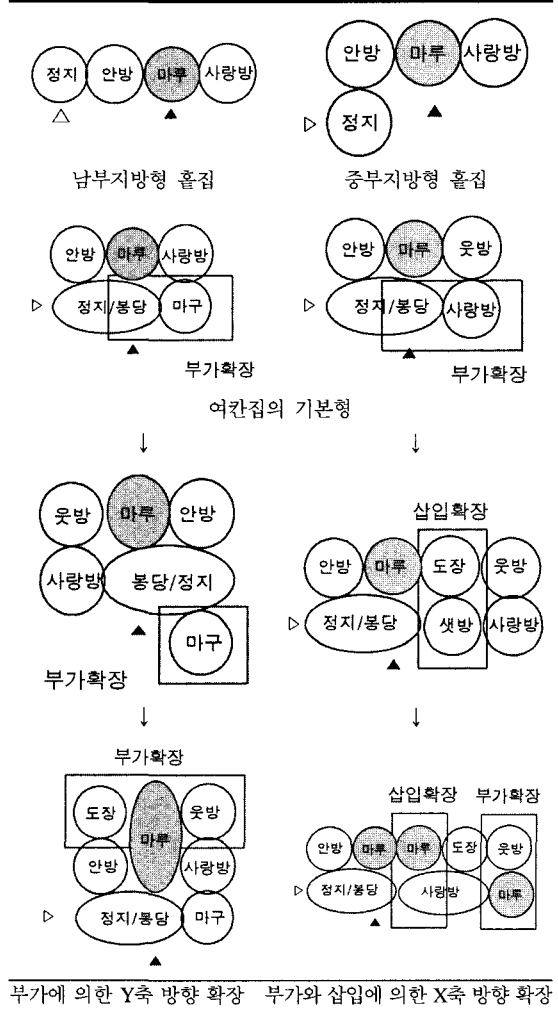
기본유형에 마구가 정지 앞으로 돌출되어 7자형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7칸을 이루는 형태로 확장 <표 2의 그림 가1>된다. 이런 경우 마구의 구유통은 내부에 면하게 함으로써 가축의 도난을 방지하고, 나머지 벽체는 빈지벽으로 외부에 돌출시켜 어느 정도 환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가축 분뇨 냄새를 해결하는 형이다.

기본유형에서 공간이 확장되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기본형에서 뒤쪽으로 반줄이 늘어나 거주공간이 반칸씩 늘어나는 유형<표 2의 그림 가2>이다. 여기에서 뒤쪽으로 한 줄이 늘어나면 정면 3칸 측면 3칸의 9칸형 세겹집<표 2의 그림 가3>으로 전체 외형은 정방형을 이룬다. 사랑방은 상하 2개의 방이 되고 안방도 뒤쪽으로 칸이 증가되거나 도장방이 들어선다. 이런 경우 수평축인 X축보다 수직축인 Y축으로 공간이 확장 발전하는데, 그 이유는 정지 아궁이로부터 각 방 구들의 난방과 관련이 있다. 아궁이와 각 구들의 고래 방향이 Y축 방향 즉, 세로방향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뒤에 방을 부가한다하여도 간단하게 구들을 연장함으로써 뒷방의 난방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세겹집은 Y축 방향으로 내부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깊이가 깊어져 일조와 환기 측면에서 불리하여 여칸집 계열에서는 Y축 방향으로 더 이상 확장한 경우를 볼 수 없다.

2) X축 방향 공간 확장

또 다른 공간의 확장 방법으로 여칸집 기본형<표 2의 그림 나>에서 X축 방향으로 공간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 형태가 여칸집의 기본유형에서 사랑방 쪽에 남자들의 거주공간인 사랑방과 어린아이들이 기거하거나 집안의 물건을 보관하는 도장방(곡식을 저장한다던가 또는 살림에 쓰이는 물건을 보관하는 수장 공간으로 쓰일 경우 ‘도장방’ 또는 ‘도장’이라고도 하며, 기거용으로 쓰일 경우 ‘옷방’ 또는 ‘뒷방’으로 불리기도 함)을 삽입시켜 확장<표 2의 그림 나1>하거나 도장방 대신 바닥이 마루로 되어 고방의 성격이 강한 마루방을 두어 확장<표 2의 그림 나2>하는 경우 정면 4칸 측면 2칸의 8칸집을 이룬다. 이런 경우 마루와 도장방 또는 고방에 의해 남녀구분에 따른 안방과의 영역분리를 보다 견고히 할 수 있고, Y축 방향으로 확장된 세겹집에서 발생

표 3. 공간 확장 다이어그램



부가에 의한 Y축 방향 확장 부가와 삽입에 의한 X축 방향 확장

하는 일조와 환기, 채광 등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결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X축 방향으로 공간이 더 확장될 경우 정면 5칸 측면 2칸까지 확장된 경우<표 2의 그림 나3>도 있으며, 이런 경우 옷방과 사랑마루 등 남성영역 중심의 공간과, 안마루와 도장방 등 여성영역 중심의 공간이 삽입과 부가에 의해 공간이 확장 전개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V. 결 론

이상에서 분석한 것을 통해서 살펴볼 때, 안동권

여칸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안동권에서 나타나는 여칸집 계열의 민가는 남부지방의 一자형 또는 중부지방의 ㄱ자형 홑집과 혼성되어 나타나므로 그 기본유형이 남부지방형과 중부지방형의 홑집에서 공간이 확장 변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안동권 여칸집의 진입방식은 전면진입이다. 이것은 여칸집의 경우 남부 또는 중부지방형 홑집의 진입방식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여칸집의 기본유형은 실의 수가 6칸으로 一자형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마구가 부가되어 돌출될 경우 7칸으로 ㄱ자형을 하고 있다.

4) 안동권의 여칸집이 세겹집으로 확장될 경우, 방이 뒤로 1열 더 확장되어 방이 2열로 배열되어 실내거주공간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형상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5) 여칸집에서 Y축 방향으로 세겹집까지 부가에 의해 공간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일조와 통풍 등에 불리하여 더 이상의 발전은 못하고, 대신 X축 방향으로 부가와 삼입에 의해 공간이 확장되어 전면 4칸 측면 2칸의 8칸내지 전면 5칸 측면 2칸의 10칸 겹집으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6) 여칸집에서 사람과 가축이 몸체에 동거하는 것이 가축의 관리와 도난방지에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위생상의 결점 때문에 공간이 확장될 경우 마구나 측간을 몸체에서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전통민가인 여칸집의 공간구성 특징은 공간 확장에 따른 주거공간을 확장시켜 나감에 있어 중앙에 있는 마루와 봉당 공간을 중심으로 모든 동선이 집약되도록 함으로써 산간지역의 자족적인 몸체 위주의 기능에 적합하게 부족한 공간을 삼입과 부가라는 확장 방법에 의하여 주거공간을 다양하게 전개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강영환(1994),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 경상북도사 편찬위원회(1983), 경상북도사, 상권.
3. 김명복(1992), 강원도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의 겹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사학위논문.
4. 김일진(1979), 韓國民家의マル中心型 케ობチブ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便覽集, 關東, pp.35-42.
5. 김홍식(1992), 한국의 민가, 한길사.
6. 임상규(1997, 3), 영동지방의 민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3호, pp.157-166.
7. 정인국(1980),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8. 주남철(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9. 조성기·지호경(1987),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 1호, pp.77-83.
10. 조성기(1999), 태백산간지역의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1호, pp.145-152.
11. 최장순(2003), 태백산간 여칸집과 두렁집의 공간확장에 따른 주거공간 구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0호, pp.121-128.
12. 최장순·최찬환(2002), 강원영동지역 田자집의 주거공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4호, pp.41-50.
13. 홍순인(1979), 전통마을의 형성과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사학위논문.
14. 홍승재(1998), 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경북지방의 겹집, 국립민속박물관.